

## 기획

#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50주년 행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대한조선학회 21세기 기획위원회>

### I. 취지 및 배경

대한 조선학회에서는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창립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8년 12월 16일 제 201차 이사회에서 “21세기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을 위촉한 바 있다. 이에 21세기 기획위원회에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하자는 데 합의하고 그 방안으로 2차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제 1차 설문조사는 99년 2월 일반 우편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99년 4월 22일 춘계학술회의에서 설문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제 2차 설문 조사는 99년 9월 두 가지 방법, 즉 인터넷과 일반우편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99년 11월 11일 제 28회 정기총회와 추계학술행사(개최장소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추계학술회의에서 요약된 형식으로 발표한 것을 보다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 II.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기획담당 부회장과 기획이사 3명, 편집이사, 사업이사로 모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민계식 부회장
- 위 원: 권순홍 기획이사, 이승희 편집이사, 이창섭 기획이사(간사), 장명우 기획이사, 조상래 사업이사(가나다 순)

### III. 조사 방법

우선 기획위원회 내부의 토의를 거쳐 조사방법과 내용은 학회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주관적인 의견만을 묻는 조사 방식을 택하였고, 두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문항마다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식의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1회 설문 조사의 응답자수는 모두 10명이라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다. 응답자가 적은 것은 너무 주관식이라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러나, 10인의 의견은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획위원회는 이들이 추천한 문제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기획위원회에서의 약간의 보완

## 기획 |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50주년 행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작업을 거쳐 제 2회 설문 조사의 문항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제 2차의 조사 방법으로는 21세기 기획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최근에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과 일반우편을 이용한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예상대로 인터넷 응답자 수가 175명, 우편응답자 수가 65명으로 전체 240명의 응답자 중 73%가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또한, 많은 응답자의 상당한 수가 조선소 등 현장의 기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는 응답 또한 신속하였고(물론, 우편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으며), 의견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정리되어 그래프로 결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 해석도 쉽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는 학회의 많은 업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IV.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다음은 제 1차 설문조사의 안내문을 보여준다. 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의 제공을 요청하고,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조선학회 회원 여러분께,

대한조선학회는 오는 200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1000년, 즉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막대한 기대를 가지게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세계 1위로 도약하는 조선 해양 산업에 부응하는 학회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작년 말부터 이사회에서 “21세기 기획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학회의 방향을 찾는 작업은 기획위원들만의 아이디어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회원님들의 고견을 21세기에 대비하는 학회의 나아갈 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설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설문 조사는 첫 번째 조사로서, 2차 설문 조사의 설문 내용의 문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학회가 새로운 시작을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 조선 해양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 계신 여러 회원님의 고견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아래 여백에 기탄 없이 적어 주시면 본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기획위원회 위원 일동

제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우선 설문의 분야를 학회의 위상, 학회의 진로 및 운영, 21세기 기념사업, 기술, 산학연, 홍보, 교육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각 분야마다 3 ~ 5개의 질문 문제를 만들고, 각 질문에 대하여도 약 5

개 이내의 가능한 답을 제시한 후에 회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복수의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 각 질문마다 회원의 의견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복수 답을 지정한 것만큼의 다수 의견을 ★표로 표기하였다. 독자는 다른 소수 의견의 중요성도 잊지 않길 바란다. 각 분야의 끝에는 기획위원회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 가. 학회의 위상

(가 - 1). 조선해양 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회가 선도적으로 수행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 역할은? (최대 2개까지 고르시오)

- |                                     |      |
|-------------------------------------|------|
| 1) 조선산업의 대국민 홍보, 친 해양 분위기 조성 사업 수행  | 7    |
| 2)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      | 13   |
| 3) 차세대 기술 개발과제를 도출 및 추진             | 20   |
| 4) 국제 학술, 기술활동의 지원 강화               | ★ 27 |
| 5) 정부의 조선정책, 표준화 사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 | ★ 33 |

(가 - 2). 조선학회의 학술활동 강화를 위하여 학회가 하여야 할 역할은? (최대 2개까지)

- |   |      |
|---|------|
| 1) 조선해양공학 분야 기술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 ★ 38 |
| 2) 조선해양공학 분야 전문 서적 발간                       | ★ 23 |
| 3)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단기 집중 강좌 개설(예, 유럽의 WEGEMT) | 17   |
| 4) 조선해양공학 분야 우수 서적 발간 지원책 수립                | 15   |
| 5) 학회지 발간, 배포의 확대                           | 7    |

(가 - 3). 국제 학술, 기술활동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회가 하여야 할 역할은?

- |   |      |
|---|------|
| 1) IMO, ISO 등과 같은 조선기술 관련 활동을 지원        | ★ 48 |
| 2) 대한조선학회 주관의 국제 학술회의를 창설한다             | 18   |
| 3) PRADS를 한국조선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국제행사화 한다 | 20   |
| 4) 국제기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재정지원 기금을 확보   | 14   |

## 학회 위상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가 - 1)에 의하면, 많은 회원이 학회가 앞장서서 정부의 조선정책, 표준화사업, 국책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제 학술, 기술활동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전담인력을 둘 수 없는 학회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회의 임원 등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선박용품의 표준화 사업은

# 기획 |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50주년 행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각 조선소에서 개별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을 막고, 비영리 단체이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학회의 주도아래 표준화를 달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뿐 아니라, 조선기술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표준을 세계 표준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의견이다.

질문 (가 - 1)과 (가 - 3)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국제 학술, 기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바라고 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며,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류도 필요하겠지만, 국내 연구, 기술인력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학회이지만, IMO, ISO 등과 같은 국제 학술, 기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가 - 2)의 다수 응답자는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기술현황 보고서와 전문 서적이 학회의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조선학회의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출판물에서 보았듯이 많은 회원이 기술현황 보고서의 출판을 고대하고 있다. 산하 연구회(선박유체연구회, 선박해양구조연구회, 선박설계연구회, 선박생산기술연구회, 해양공학연구회)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기술현황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학회의 2002년 50주년 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학회의 진로 및 운영

(나 - 1). 학계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개선하여, 산업계가 보다 학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최대 2개까지)

- |  |      |
|--|------|
| 1) 학회장이 각 분야에서 골고루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22 |
| 2) 산업현장 중심의 사업을 학회 주관으로 추진                 | ★ 28 |
| 3) 산업현장의 논문이 학회지 및 논문집에 발표될 수 있도록 편집방향 개선  | ★ 29 |
| 4)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을 늘이고, 산업계의 재정기여 활성화 | ★ 21 |

(나 - 2). 학회 회장 선출방법을 개선한다면?

- |   |      |
|---|------|
| 1) 임기 1년의 회장-차기회장 시스템을 택하여, 산업계 회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 49 |
| 2) 회장의 선출 방식을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한다                        | 22   |
| 3) 현행 제도가 좋다  | 29   |

(나 - 3). 학회의 구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꼭 필요한 소지근? (최대 2개까지)

- |   |      |
|---|------|
| 1) 전자업무 담당이사를 신설하여, Home-page 운영, 학회 업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회원에 대한 전자 서비스를 강화 | ★ 47 |
| 2) 현장의견 담당이사를 신설하여, 학회의 주요 계획에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                                | ★ 35 |
| 3) 21세기 학회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학회의 명칭을 변경  | 7    |
| 4) Offshore-mining 연구 위원회의 신설   | 11   |

**(나 - 4). 춘,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선정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 1)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조선학회논문집 게재가 확정된 논문만 발표하고, 그 외 논문은 각종 연구회에서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26
- 2)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해당 연구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통과된 논문만 발표하도록한다 ★ 37
- 3) 현행대로 유지한다 37

**(나 - 5). 춘,추계 학술대회의 운영 방안으로 꼭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제한없이 복수선택)**

- 1) 동일인의 발표 논문수를 제한한다 17
- 2) 논문의 발표자는 논문의 제1 저자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23
- 3) 논문 발표장의 좌장을 해당 분야의 원로, 전문가들로 한다 19
- 4) 병렬 진행 발표장의 수를 줄인다 16
- 5) 편당 발표 시간을 늘린다 ★ 25

**회의 진로 및 운영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나 - 1)은 산업체의 회원이 학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회가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이었으나, 대답 항목 각각에 고른 대답이 나왔다. 이는 모든 답이 산업체 현장에서 절실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질문 (나 -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회장이 산업체에서 나와서 조선계의 의견이 보다 더 학회의 진로 결정 등에 반영되고, 또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뜻이 보인다. 실제로 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회원 중에서도, 이미 회장 - 차기 회장 시스템을 정립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학회가 많이 있다. 다음 임기의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하여 “회장선출 방안 제도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 (나 - 3)은 학회의 구조, 운영 효율화에 관한 질문인데, 전자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특별히 정하여, 학회의 Homepage 운영의 정상화, 업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의 시대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분야이다. 차기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논문의 투고, 심사 등 모든 단계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 담당 이사를 두어 학회의 주요 계획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질문 (나 - 4) 및 (나 - 5)는 춘, 추계 학술회의와 관련한 질문이다. (나 - 4)의 답 중에서 제 1과 2의 답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제 3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현재 다수회원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학술발표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발표 논문의 사전 심사에 의한 선정 방법과 발표 방법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나 - 5)항에 의하면 현재 너무 짧은 발표시간을 늘리고 논문의 발표를 제 1저자 위주로 하여, 발표 자세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특별한 “목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 21세기 기념사업**

# 기획 |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50주년 행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다 - 1). 21세기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화행사로써 적합한 것을 고르다면?

- |                    |      |
|--------------------|------|
| 1) 21세기 조선학회 비전 정립 | 20   |
| 2) 21세기 조선계의 비전 정립 | ★ 47 |
| 3) 미래선박 개념설계 경연 대회 | 26   |
| 4) 무인선박 경주대회       | 7    |

(다 - 2). 토론회 및 공청회 주제로 적합한 것 2가지를 고르다면?

- |                           |      |
|---------------------------|------|
| 1) 21세기 조선학회의 진로          | 3    |
| 2) 21세기 조선해양기술의 발전방향 및 전망 | ★ 30 |
| 3) 조선해양계에서의 학회의 위상        | 11   |
| 4)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방안       | ★ 46 |
| 5) 조선학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 10   |

(다 - 3). 조선학회 춘계 또는 추계학술행사중 특별 session을 구성하여 국내외 권위자 초청강연을 실시하는데 대한 의견?

- |                |      |
|----------------|------|
| 1) 반드시 필요      | 31   |
| 2) 상황이 허락하면 추진 | ★ 65 |
| 3) 필요없음        | 4    |

## 21세기 기념사업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다 - 1)은 21세기를 맞아 추진할 문화행사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이 21세기 우리 조선계의 비전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서 대 그룹 소속으로 있는 우리 나라 조선업계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선, 해양분야 학술, 기술의 본산인 학회로서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선계의 미래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비전을 창출하고자 할 때 적절한 주제로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방안" 과 "21세기 조선해양기술의 발전방향 및 전망"을 꼽고 있다. 산학연의 협동연구에 특히 많은 의견이 모인 것은 이제는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기술 보호주의에 의해 국제적 기술 교류가 차단된, 세계적 기술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질문 (다 - 3)은 춘, 추계 학술 행사의 내실화 일환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 session을 두어 강연회를 갖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 라. 기술

(라 - 1). 현재 국내 조선해양 기술의 취약점은? (최대 2개까지)

- 1) 설계의 경험 의존도가 높고, 체계적인 설계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개념의 설계에의 적응력이 약하다.	★ 25
2) 생산분야의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	9
3) 국내 조선소 사이의 협력이 부족하여, 과당 경쟁의 원인 된다.	★ 27
4) 해석 도구, 설계 도구, 생산 도구의 국산화가 적어, 해외 의존도가 높다.	19
5) 기초 연구 및 고유 특허 기술이 부족하다.	20

**(라 - 2). 21세기 조선해양분야의 세계적인 개발 추세는? (최대 3개까지)**

1) 에너지 절약이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될 것이다.	★ 15
2) 소음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다.	7
3) 초대형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실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19
4) 해양 주거 시설이 일반화될 것이다.	7
5) 초고속선이 등장할 것이다.	17
6) 방산 분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6
7) 환경오염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 29

**(라 - 3). 21세기의 환경 친화적인 조선해양기술은? (최대 2개까지)**

1) 국제 환경 기준에 맞는 선박 부품의 개발	23
2) 무공해 선박도료의 개발	19
3)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22
4) 해양오염 방제 기술의 개발	★ 36

**기술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라 - 1)에 의하면, 현재 국내 조선 해양 기술의 최대 취약점으로는 국내 조선소 사이의 과당 경쟁과 체계적인 설계기법 미비로 새로운 개념의 설계에의 적응력이 약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시설이 과잉되면서 선가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소 사이의 협력 창구가 열려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또한, 이론과 실험에 의한 세계적인 설계 기법 확립과 새로운 설계에의 적응력을 강화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질문 (라 - 2)에 의한 21세기 조선해양분야의 세계적인 개발 추세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하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날로 고갈되어 가는 석유 에너지 값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의 중요성, 제한된 국토 자원에서 벗어나서 부유식 비행장과 폐기물 처리장치 같은 초대형 해양 구조물의 실용화하는 문제점, 아직도 국내에서는 실용화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지만 초고속선의 등장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선박 설계 및 생산, 조선 CALS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 심해자원 이용기술 개발, 선박 운항 자동화 기술의 실용화 등이 기술분야에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요소기술이다.

# 기획 | 21세기 학회의 진로 및 50주년 행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질문 (라 - 3)은 해양오염 방제 기술이 환경 친화 연구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 마. 산학연

(마 - 1). 정부의 조선산업정책, 표준화 사업, 국책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최대 2개까지)

- |  |      |
|--|------|
| 1) 학회 내에 조선해양 정책 개발 담당 부서를 운용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인도 | ★ 36 |
| 2) 조선 기자재 표준화 사업을 추진                           | 12   |
| 3) 학회의 주관으로 국책사업과제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                 | ★ 19 |
| 4) 범 국가적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                    | ★ 19 |
| 5) 유사 학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               | 14   |

(마 - 2). 선진조선해양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최대 2개까지)

- |               |      |
|---------------|------|
| 1) 초고속선 개발 사업 | 21   |
| 2) 신형식 추진방치   | 12   |
| 3) 신형식의 선박    | ★ 24 |
| 4) 해양공간 활용기술  | ★ 28 |
| 5) 초대형 해양 구조물 | 15   |

(마 - 3). 중소조선소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 제시에 학회가 하여야 할 역할은?

- |                             |      |
|-----------------------------|------|
| 1) 대형조선소의 설계, 건조 기술의 체계적 이전 | 18   |
| 2) 중소조선소 고유 애로기술의 해결 방안 수립  | ★ 41 |
| 3) 중소조선 지원 정책 개발            | 20   |
| 4) 중소조선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1   |

## 산학연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마 - 1) ~ (마 - 3)를 종합하면, 학회 내에 "산학연위원회(기칭)"를 두고, 위의 설문 중 다수 의견을 보인 부분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문 (마 - 1)은 특히 학회 내에 조선해양 정책 개발 담당 부서를 운용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질문 (가 - 1)에 대한 다수 의견과도 상통하는 답이다.

질문 (마 - 2)에서는 선진 조선해양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로 적절한 사업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분야에서는 신형식 선박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으며, 해양분야에서는 심수 해양공간 활용 기술과 같은 기술이 더욱 중요해 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질문 (마 - 3)은 중소 조선소의 고유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학회의 인도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형 조선소가 세계수준의 기술력,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중소 조선소는 열악한 기술, 자금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바. 홍보

(바 - 1). 친 해양 분위기 조성 and 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회 주관으로 개최할 경연대회로 좋은 것은?

- |   |      |
|---|------|
| 1) 모형선박 컨테스트                              | 16   |
| 2) 인력선 경연대회(Human-powered vessel contest) | ★ 19 |
| 3) 미래선박 개념 설계 경연대회                        | ★ 51 |
| 4) 잠수정 경연대회                               | 5    |
| 5) 태양에너지 추진 선박 경연대회                       | 9    |

(바 - 2). 마스크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학회가 하여야 할 일은? (최대 2개까지)

- |  |      |
|--|------|
| 1) 홍보 비디오 제작(예를들면, 거북선, 장보고, 이순신, 한국조선공업발달사) | ★ 32 |
| 2) 조선분야 개척자, 공헌자 발굴 홍보                       | 14   |
| 3) 조선 기술 홍보 만화 제작                            | 12   |
| 4) 거북선의 캐릭터화 사업 추진                           | 7    |
| 5) 조선공업의 전후방 관련산업에의 기여도를 평가, 홍보하여야 한다        | ★ 35 |

(바 - 3).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적절한 매체는? (최대 2개까지)

- |            |      |
|------------|------|
| 1) TV      | ★ 48 |
| 2) 일간신문    | ★ 34 |
| 3) 일반 대중잡지 | 8    |
| 4) 별도 홍보지  | 6    |
| 5) 학회지     | 4    |

## 홍보 분야 결과의 분석

질문 (바 - 1)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식 속에 친 해양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세대를 조선계로 끌어들이기에 필요한 행사를 보여준다. 제일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래선박 개념 설계 경연대회”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인력선 추진 선박 경연대회” 등이 친 해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행사로 여겨진다. 홍보는 역시 많은 사람이 참가하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